

익산시 저출산 공모 사업 선정

기존사업에서 '키움뜰 우리동네 돌봄 교실' 발전시켜 인건비·설치비 약 5000만원 추가 확보해

익산시가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사업' 공모에 선정돼 인건비 및 설치비 약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익산시는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작은 공부방' 공모 사업에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사업인 '키움뜰

우리동네 공부방' 사업을 지원했다. 시는 이같은 결과로 3천만원 상당의 리모델링비 및 2천만원 상당의 도서 2천여권을 지원 받았다. 2018년 6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으로 도서 납품까지 완료하였으며 7월 2일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한편, 공모사업 지원 내용은 시설 리모델링비와 도서 구입비에 한정, 실제 초등 돌봄 서비스를 운영할 인력

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익산시는 다함께 돌봄 사업에 '키움뜰 우리동네 공부방'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초등 야간 시간제 돌봄 서비스'까지 추가한 '키움뜰 우리동네 돌봄 교실'을 개발, 지원하였으며, 돌봄교사 3명의 인건비 및 시설 개선 공사에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 것.

특히 이번엔 선정된 다함께 돌봄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지난 6월 공모계획 발표 후 전국의 지자체에서 신청했고 운영계획의 우수성, 추진의지, 사업의 효율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한편,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지원금은 돌봄 교실 운영에 필요한 돌봄교사를 채용하고, 다양한 안전시설을 구축하는 등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익산 시민의 특화 초등 돌봄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장은 "익산시민의 특화 초등 돌봄사업 추진을 통해 육아가 즐겁고, 아이가 행복한 육아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 평화육교 재가설 위해 2020년까지 전면통제

14일 저녁 10시부터 사업 마무리되는 2020년 6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가 시행 중인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이 대체우회도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평화육교 전면통제에 들어간다.

익산시에 따르면 그간 대체우회도로 4차로 확장공사와 시외버스 앞 회차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4일 저녁 10시부터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 6월까지 평화육교 전면통제를 실시한다.

이번 평화육교 재가설에 따른 교통 통제 구간은 시외버스터미널→평화육교→목천동 새천년충전소와 인화동 신홍강관→평화육교→목천동새천년충전소구간이며, 대체우회도로는 평화사거리→평화제일아파트→목상산→목천동새천년충전소 구간으로 4차선으로 확장 운영한다.

1975년 가설된 평화육교는 2011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으로 관정받아 현재까지 25톤이상 중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익산시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재가설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지난 2015년 4월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 2017년 4월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2017년 7월 공사를 착공했다.

평화육교 재가설사업은 4개차로의 평화육교를 철거하고 6개차로로 확장함과 동시에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동시에 KTX호남고속철도 공용구간 병목지점인 L=0.864km를 2선에서 4선으로 시설개량을 실시하게 된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의회, 전체의원 실무 워크숍 성료

지방의원의 역할·지방의회 발전방향 등 의정활동 필요 실무위주 강의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지난 6일 리츠프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전체의원 실무 워크숍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일 제8대 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4년간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이번 워크숍에는 전체의원과 의사국 직원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방자치연구소 유재균 박사를 초빙해 '지방자치 제도의 이해', '지방의회의 연혁', '기능 및 제도적 근거', '예산·결산·조례안 등 심사개방' 등을 주제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과 지방의회 발전방향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무위주의 강의로 진행됐다.

또한 시의원들은 각 삼일유별 활발한 토론과 연찬으로 의원역량강화는 물론 의원간 화합과 친목을



군산시의회가 지난 6일 리츠프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전체의원 실무 워크숍을 열었다.

다지고 시민을 위한 보다 성숙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힘을 합쳐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과거 어느 때보다 초선의원이 대거 입성한 제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구 의장은 "지금 군산은 경제위기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군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의간 소통과 화합, 새로운 이상과 비전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 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1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회 임시회를 갖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18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민선7기 시정운영

주요업무 보고회 열어

군산시는 지난 6일 민선7기 주요업무 보고회를 갖고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의 성공적 시정운영을 위한 세부실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에는 국소장을 비롯한 관과소·읍면동장 등 군산시의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시정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비전 및 전략을 공유하고 주요정책과 공약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에서는 한국GM사태 등 경제위기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정을 펼쳐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의 생활을 잘 이해하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TF팀을 만들어 공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공약별 사업구체화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로 어디에 투자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라며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과도한 SOC사업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골목상권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실업과 구직에 대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친 실직(구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심리회복과 마음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7월 둘째 주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나' (마음관리 및 스트레스 해소), '어른들의 미술시간' (미술 심리치유) 두 과정으로 구성돼 7~8월 매주 월·목요일 10시~12시까지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고용복지+센터 2층)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고용복지+센터 2층)로 방문하거나 전화(☎150-1315-7)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박익석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장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몸과 마음건강은 물론 가정 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실직자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해 '심리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윈윈 지원'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시민들의 심리안정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미안마 국제봉사활동

(사)익산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 6일부터 8박 9일간 일정으로 미안마 국제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은 '세계는 하나'라는 포어미에 나눔과 배려라는 봉사 의미를 나누고 더불어 사는 지구촌 문화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된 특별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자들의 요청으로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해외봉사단 global friends는 미안마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해 교육팀으로 구성된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18명으로 구성, 양곤에 위치한 future stars와 grace family community, dday마을과 sintauggyri village에서 교육봉사, 노력봉사, 의료봉사 등을 펼치게 된다.

출발 전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주관



으로 미안마 후원을 위한 물품미션과 후원금 모금을 진행, 700여만원의 후원금을 마련했다.

이 금액은 미안마 주민들을 위한 우물설치 및 목욕과 빨래 등을 할 수 있는 세면장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그 밖에 후원받은 물품인 화용품 주머니, 노트, 칫솔, 가발, 의류, 구충제, 먹거리 등을 함께 전달한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시민 참여 퍼레이드 참가자 모집

군산시는 시간여행축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축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군산시간여행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거리 퍼레이드 참가자 연출팀 및 일반팀 1,000명을 오는 25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올해 퍼레이드는 명신사거리에서부터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까지 790m 거리를 8개 주제의 공연과 퍼포먼스로 꾸며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종질모와 세계 각국의 독특한 모자를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참여 퍼레이드를

주도할 계획이다.

연출참가팀은 청정 패션 및 나팔바지, 2002년 월드컵 재현 레드 코스튬 군산상고 재현 야구복, 근대복장, 종질모 및 세계 각국의 독특한 모자를 착용하면 되고, 일반참가팀은 14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종질모와 배지를 제공하고, 참가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시간 인정 등 참가혜택이 주어진다.

퍼레이드 참가희망자는 군산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festival.gunsan.go.kr) 또는 군산시 홈페이지(c



www.gunsan.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군산시 관광진흥과로 우편이나 이메일(heamang7711@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퍼레이드 참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관광진흥과(☎454-330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